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7학년도 강건희 모의고사 1회 해설

출제자 소개

강건희

(현)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현) SNUMO 통합사회팀 팀장

(전) SNUMO 사회·문화팀 팀장

(전) 2025~2027학년도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사회·문화 컨텐츠 출제

(전) 2025~2026학년도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사회·문화 컨텐츠 검토조교

기타

- 제3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 우수상 수상 (통합사회)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99%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100%

검토자 소개

이정윤

(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현) SNUMO 통합사회팀

(전) SNUMO 사회·문화팀

기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100%

안정민

(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전) SNUMO 사회·문화팀

기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100%

정진우

(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전) 2026학년도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사회·문화 컨텐츠 검토 조교

기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100%

김서원

(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기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문화 백분위 100%

빠른정답

1	③	2	②	3	⑤	4	③	5	④
6	①	7	②	8	①	9	①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③	18	③	19	⑤	20	⑤

총평

강건희 모의고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건희 모의고사 1회는 기출을 충실히 공부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및 수능 대비 모의고사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항의 난이도와 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설 모의고사처럼 '모래주머니 효과'라는 명목으로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과하게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의고사들은 실전 모의고사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에 제시문의 밀도가 높고 평가원과 유사한 난이도인 모의고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많은 문항에서 얻어갈 수 있는 학습 포인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도록 문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 : 사회 명목론처럼 보이나, 실제로 필자의 관점이 사회 실재론이라는 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9번 : A~D를 분류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 사례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합니다.

12번 : 사회 규범이 현존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관점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4번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수능처럼 갑~병이 함께 1개의 사회 집단에 속해 있음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15번 :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합 3개로 구성된 벤다이어그램의 이해에 기반하여 각 영역의 개별적인 값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했기에 풀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번 : (가)~(다)에 들어가야 할 문장이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비판해야 함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예상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컷	원점수
1등급	46
2등급	42
3등급	37

이 시험지에서 사용된 문제들과 해설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다면 게시글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쪽지를 주시거나,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keonheekang86@gmail.com

1. **[정답] ③**

[해설]

㉣, ㉤은 자연 현상, ㉠,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③ 자연 현상에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① 몰가치적적인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② 인과 관계가 분명한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④ 존재 법칙을 따르는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2. **[정답] ②**

[출제자의 한마디]

신화와 이성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필자의 관점이 사회 명목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오히려 이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이념이 개인의 사고를 규정하고 지배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관점은 실제로 사회 실재론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제시문은 끝까지 읽자!

[해설]

제시문의 필자는 비록 인간이 이성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냈으나, 그 관념 자체가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어 개인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ㄷ.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오답]

ㄴ.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 명목론이다.

ㄹ.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 명목론이다.

3. [정답] ⑤

[출제자의 한마디]

작년 9모 이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대중매체를 대놓고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통해 간단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해설]

⑤ 갑의 역할은 연예인으로, 갑의 곡인 ○○이 2010년대 최고의 K-Pop 곡 1위로 선정되거나 갑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것은 모두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오답]

① 아버지와 선생님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② 중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갑이 학생으로서 공부와 가수의 꿈 사이에서 갈등한 것은 서로 다른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 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아니므로 역할 갈등이 아니다.

④ 회사와 텔레비전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4. [정답] ③

[출제자의 한마디]

병국과 정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설]

갑국에서는 철도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발명과 정국으로부터 고속열차를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이,

을국에서는 갑국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자국에 철도망을 건설한 후 을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운하와 함께 을국 물류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이,

병국에서는 철도가 들어왔으나, 이는 갑국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조치인지 알 수 없기에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가,

정국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그 자리에 철도를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과학자들이 고속열차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발명이 나타났다.

③ 병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을국이 정국에 철도를 건설한 것은 병국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니다.

[오답]

①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② 을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④ 정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⑤ 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갑국과 정국에서는 발명이 나타났다.

5. [정답] ④

[출제자의 한마디]

실험의 결과를 통해 어떤 가설이 수용되고, 어떤 가설이 기각될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④ 갑의 〈가설〉은 수용되었기 때문에 〈가설〉은 A 집단의 애정 정도가 B 집단의 애정 정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 혹은 A 집단과 B 집단의 불신 정도가 유사한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느끼는 애정의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① ㉠은 사전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당 연구의 모집단은 부모와 자식, 표본 집단은 200개의 부모-자녀쌍이다.

③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⑤ A 집단과 B 집단의 불신 정도가 유사한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느끼는 불신의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6. [정답] ①

[출제자의 한마디]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는 많이 기출된 내용이니 하위문화의 일종인 지역 문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해설]

㉠은 갑국의 국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이므로 주류 문화이다. ㉡은 주류 문화인 ㉠과 대립하는 문화이므로 반문화이다. ㉢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이다.

ㄱ. 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이다.

[오답]

ㄴ. 지역 문화는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다. ㉡은 반문화가 맞으나, A 지역의 일부 주민들만 공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A 지역 주민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으므로 지역 문화가 아니다.

ㄷ.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는 반문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이다. 갑국의 기성세대가 ㉢을 즐기는 청년 세대를 비판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은 갑국의 세대 문화에서 시작해 이후 갑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문화가 되었으므로 하위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이지만, 갑국의 주류 문화와 대립하지 않았으므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7.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필자는 아시아가 일시적으로 쇠퇴하여 서구가 부상하였다고 본다. 이후 아시아의 경제가 다시 발전하면 서구가 쇠퇴할 것으로 보므로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ㄱ.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ㄷ.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ㄴ.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진화론이다.

ㄹ.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이론은 진화론이다.

8. [정답] ①

[해설]

갑은 자국의 문화를 A국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을은 A국의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병은 자국의 사회가 A국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② 선진 문물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③ 문화 다양성의 보존에 적극적인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④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이다.

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9. [정답] ①

[출제자의 한마디]

갑과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A~D를 구분할 때 교사와 학생의 말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시간이 다소 걸렸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편 검토해 주신 분들 중 한 분이 이 문제를 틀렸었는데, 이유가 갑이 논문을 참고하여 구조화된 문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설]

갑은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을 활용하였고, 을은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C를 사용하였으므로 C는 문헌 연구법이다. 또한 학생 2는 을은 갑과 달리 주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만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B와 D는 면접법 또는 참여 관찰법이다.

그런데 갑이 B를 사용하였고,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주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므로 B는 참여 관찰법, D는 면접법이다. 따라서 A는 질문지법이다.

① 참여 관찰법(B)은 질문지법(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

② 문헌 연구법(C)은 언어적 상호 작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③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A)이다.

④ 질문지법(A)과 면접법(D)은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B), 면접법(D)이다.

10. [정답] ②

[출제자의 한마디]

도표 중 가장 쉬운 문항입니다. 15와 20은 틀렸어도 이 문제는 맞추셨어야 합니다.

[해설]

갑국에서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과 B에서 C로의 수직 이동의 방향은 다르다는 의미는 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모두 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C는 중층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A	30	50	50
B	10	20	40
중층(C)	60	30	10
합계	100	100	100

또한 갑국에서 상층의 비율은 매 세대마다 100%씩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상층의 비율이 매 세대마다 2배씩 증가하였다는 의미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의 비율이 세대마다 2배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B는 상층이다. 따라서 A는 하층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층(B)	10	20	40
중층(C)	60	30	10
하층(A)	30	50	50
합계	100	100	100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피라미드형	모래시계형

② 부모 세대 중층(C) 인구의 비와 조부모 세대 하층(A) 인구의 비는 모두 30%이다. 그런데 갑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의 인구는 부모 세대의 인구보다 많다. 따라서 부모 세대에서 중층(C) 인구보다 조부모 세대에서 하층(A) 인구가 많다.

[오답]

① 조부모 세대에서 상층(B) 인구의 비율은 10%, 하층(A) 인구의 비율은 30%이다. 따라서 상층(B) 인구는 하층(A) 인구의 1/3배이다.

③ 자녀 세대 하층(A) 인구의 비율은 50%, 부모 세대 상층(B)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그런데 갑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인구는 자녀 세대의 인구보다 많다. 따라서 자녀 세대 하층(A)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B) 인구수는 비교할 수 없다.

〈Remark〉

갑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였으니 부모와 자녀 세대의 총인구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부모 세대의 총인구를 500명, 자녀 세대의 총인구를 200명이라고 할 때, 부모 세대 상층 인구수는 100명, 자녀 세대 하층 인구수는 100명으로 서로 같다. 만약 자녀 세대의 총인구가 200명보다 작아진다면, 자녀 세대의 하층 인구보다 부모 세대의 상층 인구가 많아진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반례를 통해서도 ③이 틀렸음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따라서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이다.

⑤ 하층(A) 인구 대비 상층(B) 인구의 비는 조부모 세대에서 1/3(=10/30), 부모 세대에서 2/5(=20/50), 자녀 세대에서 4/5(=40/50)이다. 따라서 하층(A) 인구 대비 상층(B) 인구의 비는 조부모 세대에서 가장 작고, 자녀 세대에서 가장 크다.

11. [정답] ⑤

[해설]

A는 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 부서들을 폐지하고 팀 중심 조직 운영 체제를 택하였다. 따라서 ㉠은 관료제, ㉡은 탈관료제이다.

⑤ 관료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탈관료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오답]

①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비교적 높은 체제는 관료제이다.

②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체제는 관료제이다.

③ 업무 체계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체제는 탈관료제이다.

④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한 체제는 탈관료제이다.

12. [정답] ②

[출제자의 한마디]

기능론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문제 풀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Remark〉를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설]

첫 번째 질문인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가?'에 '예'라고 답할 이론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두 번째 질문인 '사회 규범은 현존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가?'에 '예'라고 답할 이론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세 번째 질문인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에 '예'라고 답할 이론은 기능론이다.

〈Remark〉

기능론은 사회 제도와 규범을 통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본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즉 현존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 규범을 만들었다고 본다.

갑과 을은 모두 세 번째 질문에 'B'라고 답했다. 만약 B가 기능론이 아니라면, 을은 'A, B'라고 답한 첫 번째 질문에서 0점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는다. 따라서 이때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갑은 'A, C'라고 답한 첫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으나, 'C'라고 답한 두 번째 질문에서는 0점을 얻는다. 따라서 갑은 네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을의 대답은 각각 'A', 'C'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에서 갑과 을은 모두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B는 기능론이고, 갑과 을은 모두 세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는다. 갑과 을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각각 'C', 'A, C'라고 답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을의 점수는 0점이다. 또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은 모두 'A, C'로 같기 때문에 갑은 첫 번째 질문에서 0점을 얻는다.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서 갑은 1점을 얻고, 갑과 다른 대답을 한 을은 0점을 얻는다. 또한 을은 첫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기 때문에 A는 갈등론이다. 따라서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고, (가)에는 갈등론(A)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C)은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오답]

①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다.

③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B)이다.

④ '개인들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하는가?'에 '예'라고 답할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C)이므로 앞선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하는가?'에 '예'라고 답할 관점은 갈등론(A)이므로 앞선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3. [정답] ④

[출제자의 한마디]

대다수의 빈곤 문항들은 단순히 중위 소득에 대해 언급만 하지, 중위 소득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문항을 통해 중위 소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Remark〉

중위 소득이란 한 국가 내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개의 가구만 있는 갑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가구의 소득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가구	A	B	C	D	E
소득	200만 원	50억 원	3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각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다면

3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억 원

이다.

따라서 갑국의 중위 소득은 300만 원이다.

[해설]

A는 전년 대비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절대적 빈곤, B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상태이므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④ 상대적 빈곤(B)은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오답]

① 만약 갑국 정부가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만큼 중위 소득이 함께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갑국 정부가 모든 가구에게 2X원씩 지급한다면, 모든 가구의 소득이 2X원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중위 소득은 2X원 증가하고, 중위 소득의 50%는 중위 소득의 증가분의 50%인 X원씩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을 통해 상대적 빈곤(B)에 해당하는 가구의 감소를 예상할 수 없다. 반면, 최저 생계비의 수준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A)에 해당하는 가구의 감소는 예상할 수 있다.

② 스스로 자신의 소득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태는 어떤 빈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적 빈곤(B)에 따른 빈곤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⑤ 선진국에서는 주로 절대적 빈곤(A)보다 상대적 빈곤(B)에 따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4. [정답] ④

[출제자의 한마디]

Q : 기업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실업팀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A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 운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울러 을이 △△시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 수영 실업팀이라는 공식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해설]

갑, 을, 병이 언급한 사회 집단과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언급한 사회 집단	속해 있는 사회 집단
갑	가족, 회사, 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 아파트 수영 동호회	○○ 아파트 수영 동호회, 가족, 고등학교 동창회
을	고등학교, 교내 수영 동아리, △△시청, △△시 수영 실업팀	○○ 아파트 수영 동호회, 고등학교 동창회, △△시 수영 실업팀, □□ 기업
병	□□ 기업, ○○ 아파트 수영 동호회, 초등학교, 중학교, 가족	○○ 아파트 수영 동호회, □□ 기업, 가족

④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와 고등학교 동창회로 2개, 병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로 1개이다.

[오답]

① 갑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와 고등학교 동창회로 2개, 을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시 수영 실업팀, □□ 기업으로 2개이다.

② 을이 언급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교내 수영 동아리으로 1개, 병이 언급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으로 1개이다.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기업로 1개, 갑이 언급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와 고등학교 동창회로 2개이다.

⑤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 아파트 수영 동호회와 □□ 기업으로 2개, 갑이 언급한 1차 집단의 개수는 가족으로 1개이다.

15. [정답] ②

[출제자의 한마디]

15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출제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1. 3개의 사회 보장 제도 (26학년도 기출)
2. 가중평균 (21-23학년도 기출)
3. 수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집합 (200620 등)
4. 중복 수급자의 분리 (신유형)

1번과 2번은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익숙할 출제요소입니다. 다만 3번째 출제요소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추가로 중복 수급자를 2중 수급자와 3중 수급자로 분리하여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풀이법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사회 보장 제도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라 생각합니다.

[해설]

A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이다. C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부조이며, 따라서 B는 사회 보험이다.

A 수혜자 비율의 경우, (가) 지역이 17%, (나) 지역이 25%, 갑국 전체가 23%이다. 즉, {갑국 전체 A 수혜자 비율 - (가) 지역 A 수혜자 비율} : {(나) 지역 A 수혜자 비율 - 갑국 전체 A 수혜자 비율} = 6 : 2이므로 {(가) 지역 인구} : {(나) 지역 인구} = 1 : 3이다.

C 수혜자 비율의 경우, (가) 지역이 ㉠%, (나) 지역이 38%, 갑국 전체가 34%이다. {(가) 지역 인구} : {(나) 지역 인구} = 1 : 3이기 때문에

(34 - ㉠) : (38 - 34) = 3 : 1

34 - ㉠ = 12

㉠ = 22이다.

비(非)수혜자 비율의 경우, (가) 지역이 12%, (나) 지역이 ㉡%, 갑국 전체가 9%이다. {(가) 지역 인구} : {(나) 지역 인구} = 1 : 3이기 때문에

(㉡ - 9) : (9 - 8) = 3 : 1

㉡ - 9 = 3

㉡ = 12이다.

〈Remark〉

A 수혜자 비율의 경우, 가중평균의 원리에 따라 (가) 지역과 갑국 전체의 차이가 6, (나) 지역과 갑국 전체의 차이가 2이므로

{(가) 지역 인구} : {(나) 지역 인구} = 1 : 3이다.

한편, (가) 지역의 3중 수혜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A, B, C 중 2개 이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

이때 각 지역의 전체 인구의 비율은

(A 수혜자의 비율) + (B 수혜자의 비율) + (C 수혜자의 비율)
- (중복 수혜자의 비율 + 3중 수혜자의 비율)
+ (비(非)수혜자의 비율)
= 100

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emark〉

A∪B∪C는

(A+B+C)−(A∩B+B∩C+C∩A)+(A∩B∩C)로 나타낼 수 있다.

(가) 지역의 3중 수혜자의 비율을 x라고 할 때,

100 = 17 + 55 + 22 - (4 + x) + 12

100 = 102 - x

x = 2를 얻는다. 따라서 (가) 지역의 3중 수혜자의 비율은 2%이다.

마찬가지로 (나) 지역의 3중 수혜자의 비율을 y라고 할 때,

100 = 25 + 63 + 38 - (20 + y) + 8

100 = 114 - y

y = 14를 얻는다. 따라서 (나) 지역의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4%이다.

이때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2중 수혜자의 비율과 3중 수혜자의 비율의 합이다. (가) 지역의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4%, 3중 수혜자의 비율은 2%이기에 2중 수혜자의 비율은 2%이다. (나) 지역의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20%,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4%이기에 2중 수혜자의 비율은 6%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중복 수혜자		비(非) 수혜자
				2중 수혜자	3중 수혜자	
(가) 지역	17	55	22	2	2	12
(나) 지역	25	63	38	6	14	8
전체	23	61	34	5	11	9

또한, (가) 지역 인구수를 100, (나) 지역 인구수를 300, 갑국 전체의 인구수를 400이라 가정할 때,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중복 수혜자		비(非) 수혜자
				2중 수혜자	3중 수혜자	
(가) 지역	17	55	22	2	2	12
(나) 지역	75	189	114	18	42	24
전체	92	244	136	20	44	36

② (나) 지역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4%, ㉡은 12이다.

[오답]

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C)이다. 이때 (나)지역의 2중 수혜자들은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지역에서 공공 부조(C)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공공 부조(C)의 혜택을 받고 있는 2중 수혜자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나) 지역에서 X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X 제도 수혜자의 비율에서 3중 수혜자의 비율을 제외한 후, 2중 수혜자의 비율에 따른 범위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18 ≤ (나) 지역에서 공공 부조(C)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 ≤ 24

이고, ㉠ = 22이므로 ㉠과 (나) 지역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만 받는 사람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다.

③ 2중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18명, (가) 지역이 2명이다.

④ (가) 지역에서 공공 부조(C)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22명, 갑국의 3중 수혜자 수는 44명이다.

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A)이다. (나) 지역에서 사회 보험(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129명 이상 147명 이하이고, 갑국에서 사회 서비스(A)의 혜택만 받는 사람 수는 28명 이상 48명 이하이므로 (나) 지역에서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갑국에서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만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16. [정답] ④

[해설]

A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흑인이라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B는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

C는 병국의 국교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④ B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오답]

① A가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는지는 제시문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② B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 C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있는지는 제시문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⑤ C가 차별을 받은 이유는 병국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후천적 요인 때문이다.

17. [정답] ③

[출제자의 한마디]

㉡은 경험담입니다. 근데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40분 정도 걸리다보니 반쯤 체념/반쯤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해설]

㉠은 포르투갈인들 사이에 공유된 생활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에는 공유성이 드러나 있다. ㉡은 외부인들이 포르투갈의 문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임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에는 학습성이 드러나 있다. ㉢은 어업이라는 포르투갈의 산업이 포르투갈의 식문화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에는 전체성이 드러나 있다. ㉣은 바칼라우의 기존 조리법에 새로운 재료가 추가되어 조리법이 변화함을 보여 주고 있기에 ㉣에는 축적성이 드러나 있다.

ㄴ. 학습성은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ㄷ. 전체성은 문화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임을 보여 준다.

[오답]

ㄱ. 문화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이다.

ㄹ.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부여함을 보여 주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다.

18. [정답] ③

[해설]

(가)에는 동물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나)에는 사회 운동이 아닌 다수의 행동이 나타난다. (다)에는 동물권의 강화를 요구하며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③ (다)에는 동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오답]

① (가)에는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는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는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에는 모두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수의 행동이 나타난다.

19. [정답] ⑤

[출제자의 한마디]

[해설]

갑의 관점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의 관점은 차별 교제 이론, 병의 관점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가)에는 차별 교제 이론의 관점에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비판이, (다)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아노미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오답]

①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따라서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모두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③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을 중시하는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따라서 (다)에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이 들어갈 수 없다.

④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20. [정답] ⑤

[출제자의 한마디]

문제 풀이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문제 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A와 B는 각각 (유소년 부양비)/100, (노년 부양비)/100임을 알아차리셨을지 궁금합니다.

[해설]

A와 B는 각각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 대비 노년 인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A와 B의 분모는 모두 부양 인구이다. (A+B) × 100의 값은 총부양비인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양 인구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t년의 총부양비는 {(3/4) + (1/4)} × 100 = 100이기 때문에 t년에 부양 인구의 비율은 50%이다. 또한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t년 대비 t+50년에 2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 t+50년 대비 t+100년에 10% 감소하였으므로 t+100년 부양 인구의 비율은 54%이다. t+50년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B 분자의 비율은 10%이고, 따라서 A 분자의 비율은 30%이다. t+100년 부양 인구의 비율은 54%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A 분자의 비율은 36%이고, 따라서 B 분자의 비율은 10%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t년	t+50년	t+100년
부양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한 A 분자의 비율	37.5	25	36
부양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한 B 분자의 비율	12.5	15	10
부양 인구	50	60	54
총합	100	100	100

한편,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의 수는 t+50년이 가장 크다는 뜻은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50년이 가장 크다는 뜻과 같다. 그런데 만약 B 분자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라면,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3, t+50년이 5/3, t+100년이 18/5로 t+50년이 가장 작다. 따라서 A 분자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고, B 분자의 비율은 노년 인구의 비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인구	37.5	25	36
부양 인구	50	60	54
노년 인구	12.5	15	10
총합	100	100	100

또한 갑국의 노년 인구는 t년과 t+100년이 같기 때문에 t년의 노년 인구를 25명라고 가정하면, t년의 유소년 인구는 75명, 부양 인구는 100명이고,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90명, 부양 인구는 135명, 노년 인구는 25명이다. 또한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50년이 같고, t년의 유소년 인구는 75명이기 때문에 t+50년의 유소년 인구는 75명, 부양 인구는 180명, 노년 인구는 45명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인구	75	75	90
부양 인구	100	180	135
노년 인구	25	45	25
총합	200	300	250

⑤ 노년 인구의 비율은 t+50년이 15%, t+100년이 10%이므로 사회 보험 지출 정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25/60) × 100(≒41.6), t+100년이 (36/54) × 100(≒66.7)이므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증가하였다.

[오답]

① 갑국의 총인구는 t년이 200명, t+50년이 300명, t+100년이 250명이므로 갑국의 총인구는 t년이 가장 작고, t+50년이 가장 크다.

②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이 100+25=125명, t+50년이 180+45=225명이다.

③ t+50년의 노년 인구는 45명,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90명이다.

④ 노령화 지수는 t년이 (12.5/37.5) × 100(≒33.3), t+100년이 (10/36) × 100(≒27.7)이므로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감소하였으나,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12.5%, t+100년이 10%이므로 사회 보험 지출 정도는 감소하였다.

〈Remark〉

선지 ④의 경우, 비교해야 할 값은 (12.5/37.5) × 100과 (10/36) × 100이다. 그런데 이때 100은 양측에서 약분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값은 12.5/37.5 = 1/3과 10/36 = 5/18이다.

이때 1/3 = 6/18이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는 점은 자명하다. 가끔씩 (10/36) × 100를 실제로 계산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 최소한의 비교만을 하자.

한편, 선지 ⑤의 경우 비교해야 하는 두 분수가 각각 25/60 = 5/12와 36/54 = 2/3이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하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25/60) × 100를 계산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시간낭비이다.